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포교원, 청소년 특성화 캠프 ‘고민타파 Happy Dream Camp’

“저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데, 부모님은 저에게 의사, 외교관이 되라고 강요하세요.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요.”

지난 8월 28일 서울 역촌동 삼보사 지하 법당 안에는 청소년들이 둘러앉아 도화지에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김진혁(가명·16)군은 꾸불꾸불한 길을 도화지에 그려놓고, 그림을 ‘스트레스 섬’이라 불렀다. 김 군은 ‘자신의 꿈을 찾아 떠나는 보물섬 지도그리기’ 시간에 자신의 꿈은 산업디자이너지만,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혀 힘든 현실을 ‘스트레스 섬’이라는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지난 8월 25~26일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두 차례에 걸쳐, 꿈과 비전을 찾는 청소년 특성화 캠프 ‘고민타파 Happy Dream Camp’를 서울 역촌동 삼보사에서 진행했다. 캠프는 나날이 늘어나는 학교폭력과 게임중독 등 무분별한 유희물에 노출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꿈과 비전을 찾아주기 위해 마련된 특성화 캠프로, 포교원이 처음으로 개발해 시범 운영했다.

캠프에는 인생의 순례를 시작하는 5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해 성격심리학을 바탕으로 ‘나만의 꿈과 비전’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한 김일명 중앙승가대학교육원 교수가 진행을 맡아 학생

들에게 자신이 진짜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에 고민해 보는 시간으로 운영됐다.

오전수업은 학생들이 스스로 자가 진단하는 심리유형 테스트가 진행됐다. 인간은 같은 사물을 봐도 서로 다르게 보고, 느끼며, 판단한다. 하지만 이 ‘다름’에는 개인마다 일관된 경향이 나타난다. 학생들은 MBTI(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성격유형검사를 통해 자신의 기질과 관심 주제에 따라 관음형, 유마형, 심향형, 선재형 등으로 조를 구성한 후 조원들과 함께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각자 큰 종이 안에 색연필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담았다. 하지만 몇몇 학생들은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표현하는데 낯설어하는 모습이었다. 부모들의 눈치를 살피며,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피력하지 못하기도 하며, 그림을 숨기고, 지도 선생님에게만 귀속말로 얘기하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오후 수업이 시작되자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좀 더 진지한 모습을 보였다. 두 번째 프로그램인 ‘나만의 보물섬을 찾아서’는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것, 내가 잘하는 것,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자신이



삼보사에서 김일명 교수와 학생들이 서로의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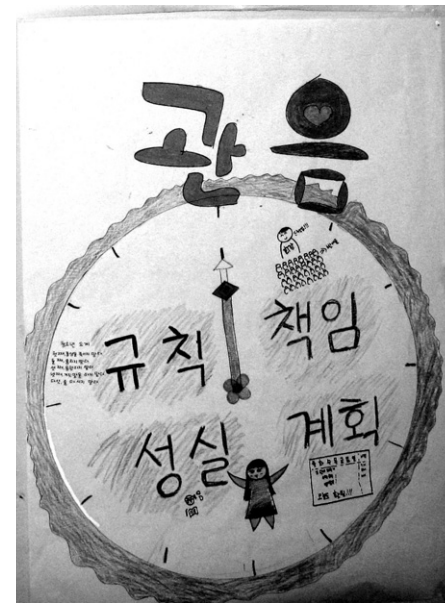
청소년 꿈과 비전 찾아주는
특성화 캠프 첫 시범운영
50여 학생 진로 고민

나의 꿈, 부모님의 꿈 비교
10년단위 진로계획 세워
9월에는 집중명상 캠프 실시

진짜 무엇을 원하고,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생각한 후 ‘나의 보물지도 만들기’를 실시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장래희망과 부모님의 희망이 다르다는 점을 깨닫고,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의견조

울을 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이었다. 이런 고민의 흔적들은 ‘미래 비전 세우기’ 시간을 통해 명확히 드러났다. 10년 단위로 자신이 희망하고자 하는 일을 계획해 ‘인생의 시계’를 그려보는 시간에서, 학생들은 좀 더 구체적인 활동계



‘관음형’ 조가 자신의 강점을 표현한 그림

획들을 이야기했다.

변다인(16)양은 “예전부터 미용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다. 부모님은 미용관련 일은 힘들고 돈도 못 번다고 생각해서 반대하셨고, 지금도 내가 진로를 바꾸시길 희망하십니다. 부모님에게 내가 미용관련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미대에 입학 후 공부를 하다 일본 유학을 마치고 미용관련 자격증을 따고 싶다”며 “프로그램 참가를 통해 오히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기회가 돼서 좋았다. 앞으로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딸과 함께 경북 봉화에서 올라왔다는 학부모 김숙란(46)씨는 “고3을 앞두고 있는 딸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아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됐다. 부모로서 자식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관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다”며 “앞으로 불교계에 이런 프로그램이 더욱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뜻을 밝혔다.

김일명 교수는 “본래 4주 동안 진행 될 프로그램을 하루에 소화하다보니,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간이 짧았던 것 같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처음 시범 운영된 만큼, 학생들끼리 좀 더 친해지고 스스로 마음을 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프로그램을 보완한다면 훨씬 효과적인 성과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포교원 측은 “이번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9월에는 ‘15분 집중명상! 명상 UP’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명상을 통해 뇌기능 향상과 마음과 몸의 유지를 통해 학생들 성격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다”며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포교원은 ‘고민타파 Happy Dream Camp’가 활성화되면 향후, 어린이법회 지도스님 및 지도교사를 통해 청소년법회 사찰에서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이은정 기자 soe84@hynul.com

통합종단 50년 포교활동 되돌아보다

9월 6일 제49차 포교정책연구회 개최

10월 14일 국제포교사 고시 실시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이 통합종단 50년 동안의 포교활동을 되돌아보고, 미래포교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포교원은 9월 6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통합종단 50년, 포교방법의 성과와 미래 포교비전’을 주제로 제49차 포교정책연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구회에는 한국종단협의회 인권위원장 진관 스님이 발제자로 나서 ‘포교의 성과와 미래 비전’ 주제로 발표하며, 동국대 겸임교수 영석 스님, 유승무 중앙승가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어 윤남진 NGO리서치 소장이 ‘사찰의 지역공동체를 통한 포교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김경호 마곡사 기획위원, 이태호 조계사 마인드케어 평생교육원 본부장이 각각 토론자로 나선다.

포교원 측은 “지난 2003년 이후 포교종

책연구회를 통해 종단 핵심사업 및 주요 사업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이에 대한 중무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포교정책연구회에도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포교원은 10월 14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2012년도 국제포교사 고시’를 실시한다.

이번 고시는 ‘국제포교사 운영에 관한령’에 따라 국제포교 활동을 위해 국제포교 인력의 배출 및 활동을 증진하고 보장하기 위해 실시되며, 영어는 필기시험과 집단면접으로 이뤄진다.

제2외국어인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국제포교사는 심층면접으로 선발하며, 어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접수는 9월 17~28일까지. 접수비는 5만원이다. (02)2011-1894 이은정 기자

‘도전! 범종을 울려라’ 전 세대 문화축제

8~9일 ‘나란다 축제’ 동국대·전국 시험장 1만명 참가

은정진흥원·조계종포교원 주최

올해 불교교리 경시대회에서 확대·개편된 ‘제4회 나란다 축제’가 1만 명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질 전망이다. 9월 8~9일까지 동국대를 비롯한 전국에서 개최되는 나란다 축제는 체험부스 설치와 나란다 드림콘서트, 문화·체험마당 신실과 일반부 참여 확대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축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참여하는 나란다 축제는 중등부와 고등부, 군장병이 참여하는 ‘불교교리 경시대회’와 일반부와 초등부가 참여하는 ‘도전! 범종을 울려라’, 전통문화체험마당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과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이 공동 주최하는 ‘전통문화체험마당’은 9월 8일 오전 11시~오후 4시까지 서울 동국대 만해광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20여 개의 프로그램

이 운영되는 체험마당은 ▷도전 108초 민속놀이 한마당 ▷미로축구 ▷천연염색 ▷한지연꽃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등이 상설 운영된다. 이밖에도 독도사진전을 비롯해 오후 1시부터는 청소년들과 사찰들의 참여로 이뤄지는 ‘나란다 드림콘서트’가 진행된다.

일반부와 초등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도전! 범종을 울려라’는 동국대 체육관에서 진행된다. 3인 1조로 64개팀 192명이 참여하는 일반부는 오전 11시에 퀴즈대회를 진행하며, 초등부는 4492명이 예선을 거쳐 오후 2시 30분부터 결선을 시작한다.

또 중·고등학생 2060명은 오전 11시부터 전국 11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불교교리 경시대회’를 진행한다. 2135명의 군장병들은 9월 9일 오전 11~12시까지 25사단 비룡사를 비롯한 전국 33개 군법대에서 동시에 경시대회를 실시한다.

(02)515-9351 이은정 기자

금강대, 지역민 위한 인문학 강좌 실시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김천학)는 9월 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총12주간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천안 W웨딩컨벤션 2층에서 ‘금강아카데미-인문학 시민강좌’를 운영한다.

강의는 ▷정병조 총장 ‘한국인의 종교수용, 무엇이 문제인가’ ▷박영길 교수 ‘인도의 수행론-불교의 요가수행’ ‘요가행법의 이론과 실수’ ▷한지연 교수 ‘잃어버린 문서의 고향-호탄’ ‘살아있는 불

교 박물관-돈황’ ▷차상엽 교수 ‘티베트인과 티베트불교, 과거와 현재’ ‘다시 보는 티베트인들의 삶과 문화’ ▷석길암 교수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의 발원지-장안기행’ ‘천안 직산, 원효의 깨달음을 말하다’ ▷김천학 소장 ‘삼국시대 불교의 일본 전파에 얽힌 이야기’ ‘현대 일본인의 불교신앙과 신들의 세계’ ▷정병조 총장 ‘한국의 종교와 불교의 미래를 말하다’로 진행된다. (041)731-3614 이은정 기자

20~30대 위한 채식 특강·템플스테이

불교여성개발원 사찰음식문화센터(센터장 남혜정)는 20~30대 젊은 불자들이 대상으로 9월 15~16일 경기도 양평 용문사에서 ‘젊은 세대 채식문화 확산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또 9월 12일 오후 5시 30분 동국대 정각원, 10월 9일 오후 7시 마포 불교광송 3층 법당에서는 선재 스님이 강연자로 나서

‘나와 생명을 살리는 채식문화’ 특강을 진행한다.

남혜정 사찰음식문화센터장은 사찰음식을 바탕으로 젊은이들에게 채식문화를 확산시켜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지구 생태계 보존에 기여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02)722-2101~2 이은정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1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략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쇠송, 상단에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2년 9월 중

◆개강일시 : 2012년 9월 개강.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원본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한국불교교육대학 천불사 &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공동주최!

천안시민을 위한, 인문학 강좌 수강생 모집

9월 5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W웨딩컨벤션 2층)

일시	강사	주제
제1주 9. 5(수)	정병조 총장	한국인의 종교수용, 무엇이 문제인가
제2주 9. 12(수)	박영길 교수	인도의 수행론 - 불교의 요가수행
제3주 9. 19(수)	박영길 교수	요가행법의 이론과 실수(實修)
제4주 9. 26(수)	한지연 교수	잃어버린 문서의 고향 - 호탄
제5주 10. 10(수)	한지연 교수	살아있는 불교박물관 - 돈황
제6주 10. 17(수)	차상엽 교수	다시 보는 티베트인들의 삶과 문화
제7주 10. 24(수)	차상엽 교수	티베트인과 티베트불교, 과거와 현재
제8주 10. 31(수)	석길암 교수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의 발원지 - 장안기행
제9주 11. 7(수)	석길암 교수	천안 직산, 원효의 깨달음을 말하다
제10주 11. 14(수)	김천학 소장	삼국시대 불교의 일본전파에 얽힌 이야기
제11주 11. 21(수)	김천학 소장	현대 일본인의 불교신앙과 신들의 세계
제12주 11. 28(수)	정병조 총장	한국의 종교와 불교의 미래를 말하다 (수료식)

강의 장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삼동동 281-1 W웨딩컨벤션 (천안 삼거리공원 맞은편)
접수: 041) 557-3223 팩스 041) 555-6550 (한국불교교육대학 천불사 총무소-수강료 5만원) 수료하신 분은 「한국인문학지도자」 자격 수료증을 드립니다.

시내버스 이용시: 터미널/역전에서 병천, 수신, 독립기념관 방면 330, 331, 350, 352, 381, 400, 401, 402, 410, 411, 412, 413, 420, 430, 431, 481, 500, 510, 520, 530, 532, 540, 550, 590, 592 (동중학교 앞 하차)

자카용 이용시: -천안C - 목천(독립기념관)방항으로 주행시 천안삼거리공원, 동중학교 앞 -목천C - 천안방항으로 주행시 천안삼거리공원, 동중학교 앞

W웨딩컨벤션 ☎ (041) 569-2211